

교육, 지방소멸 돌파구

정읍에서 배우고 성장한 인재, 지역에 뿌리내린다

지방소멸의 파고를 넘기 위한 정읍시의 핵심 해법은 '사람'과 '교육'이다. 정읍시가 청년 취업부터 농촌유학, 장학사업, 평생학습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맞춤형 교육 복지 시책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한다.

청년들의 지역 이탈을 막는 밀착형 취업 지원, 외부 인구를 유입시키는 농촌유학 인프라 구축, 학부모의 경제적 짐을 덜어주는 촘촘한 장학사업, 지역 대학과 연계한 평생 학습 생태계 조성을 맞물려 가동한다. 이는 정읍에서 배우고 성장한 인재가 지역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만드는 '교육-취업-정착'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시의 의지다.

#청년인구 유출 막는 '청년취업시험준비반'... 42명 합격 성과 이어나간다

정읍시는 청년취업시험준비반생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해 실질적인 청년 취업을 높이고자 '청년취업시험준비반'을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사업 첫해부터 2025년까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을 투자했고 올해는 이전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의 강화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사업비(도비) 5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읍시 평생학습관 3층에서 전문 교육업체인 (주)에듀스와 박문각에 위탁해 양질의 강의와 상담을 제공하며 운영하고 있다.



청년취업시험준비반



가족채류형 시설

교육 과정은 공무원 직강(기본 심화), 공무원 동영상, 공기업(NCS)반 등 3개 과정으로 세분화해 수강생의 목표에 맞춘 전문 강의를 제공한다. 특히 매일 오전 8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도 자율학습실을 전면 개방해 학습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이러한 지원은 2025년 도입 이후 공무원 36명, 금융권 3명, 공기업 등 3명을 포함해 총 42명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하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2026년 현재 기본반 23명, 심화반 40명, 동영상반 54명, NCS반 9명 등 총 123명의 수강생이 참여 중이며 시는 지역 청년들의 취업 성공이 곧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으로 이어지는 핵심 동력으로 보고 있다.



단풍이카데미

#지방소멸 대응 마중물, '농촌유학 가족채류형 거주시설' 철보면 일대 조성

타 지역 인구를 유입하고 농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농촌유학 가족채류형 거주시설 조성 사업'도 본격화된다. 농촌유학 자녀를 둔 가구가 온 가족 단위로 이주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시설은 철보면 시산리 일대에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40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 도비 6억, 시비 4억)이 투입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단독주택 10호와 주민 교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1동이 들어선다. 지난해 토지 매입과 공사 발주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준공 이후 농촌유학생 모집 절차를 거쳐 8월 거주시설에 본격적인 입주를 시작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초·중·고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

정읍을 이끌어갈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 8억1,850만원을 직접 지원하며, 정읍교육지원청에는 14억2,270만원을 지원한다.

초·중·고등학교에는 학생들의 재능 육성과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 학교 오케스트라 활동 지원 1인 1악기 교육, 정읍농악 활성화 교육을 지원한다. 또 우리 지역의 인문역사자원을 활용한 창의인재 육성 지원과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한 코딩 교육도 지원한다. 더불어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안전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스쿨버스



청소년년방과후아카데미

청년 취업·농촌유학·평생학습 등 전방위 시책 시동 '교육-취업-정착' 선순환 구조완성... 경쟁력 확보



지역혁신 대학지원체계

요즘 지원과 함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체육복구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총 7개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읍교육지원청에는 국제문화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 국제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지역적 특색을 살린 교육협력지구사업, 학생들의 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수상안전교육 지원 등 총 4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9억 규모 촘촘한 장학사업... 수도권 장학수련 운영 및 맞춤형 학원비 지원

우수 인재 양성과 학부모의 공교육 밖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총 29억7,500만원(시 출연금 23억7,000만원, 재단기금 6억9,500만원) 규모의 체계적인 장학사업을 정읍시민장학재단을 통해 연중 추진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장학금에는 13억2,500만원이 편성됐다. 대학 신입생에게는 생활 준비자금을 지원하며 재학생 우수인재 장학금은 선발인원을 매년 확대해 올해 최종 목표인 200명을 선발한다. 또한 수도권 진학 학생들의 주거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인양사에 위치한 '정읍장학숙' 운영에 9억2,200만원을 투입해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및 대학원생 총 98명을 수용하며, 월 15~20만원의 저렴한 사용료로 기숙사를 제공한다.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업 지원에는 7억2,800만원이 투입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전문 입시업체의 획일적인 교과수업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 맞춤형 교육'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인터넷 강의와 학원 수강료를 직접 지원하며 고등학생들의 진로·진학을 돕기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를 위한 '더 큰 나무 키우기 프로젝트'는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교과목의 학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170명에게 11개월 동안 지원한다. 이 사업에는 관내 45개 소의 학원이 재능기부 형태로 동참하며 지역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있다.

더불어 '별첨품 재능바우처 지원사업'을 54개소의 학원과 협력해 교과 외 과목인 예능, 기술, 기예 분야 학원비 지원으로 6억7,500만원이 투입되고 저소득층, 다문화, 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의 7세에서 19세까지의 아동·청소년 680명에게 11개월 동안 지원한다.

#청소년 전용시설 7개소 연중 운영... 활동·보호·복지 빈틈없는 밀착 지원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15억1,100만원(국비 3억5,600만, 도비 8,500만, 시비 10억7,000만)을 투입, 관내 7개소의 청소년 전용시설에서 맞춤형 복지·활동 프로그램을 연중 가동한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활동 공간인 청소년 문화의집(문화체육관, 신대인청소년문화의집)과 종합 활동 거점인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각각 2억5,400만원, 3억6,500만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동아리 활동 지원, 어울림마당, 청소년 우호교류, 유소년 수영축제,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활동을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위기 청소년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2억9,00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1억2,800만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2억2,800

만원을 투입해 지역 연계·협력을 통한 청소년 안전망 구축, 위기청소년 심리·교육지원, 학업 복귀와 1:1 맞춤형 상담, 방과후 돌봄서비스 등을 밀착 지원한다. 아울러 성교육 전문 기관인 청소년성문화센터에 2억4,600만원을 배정해 체험과 교육 및 찾아가는 성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며 청소년 보호망을 확고히 다진다.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대... 지역혁신(RISE) 체계 연계 시너지 극대화

시민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기반 확대 사업에 16억9,600만원(국비 4억9,500만원, 도비 1억7,100만원, 시비 10억9,000만원)을 투입한다.

평생학습관 및 여성문화관에서 상반기 신규 6개 과목을 포함한 총 47개 과정의 프로그램(800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1:1 맞춤형 원스톱 취업지원서비스,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훈련, 새일여성인턴 취업연계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원거리 지역 주민의 학습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모두배움터(9개 지역 10개소)'와 성인 문해교육 등을 운영해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아울러 정읍시 대표 시민 강연 프로그램인 '단풍이카데미'에서는 문명배진 한법재판관 특강을 통해 법과 정의의 가치에 대한 깊은 울림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과 연계한 평생직업교육 강화가 주목된다. RISE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사업이며, 전북과학대(6억1,200만원)와 우석대(11억2,000만원)의 공모사업 선정을 기반으로 이주민·다문화인재 활용, 상화차거리 활성화 등 5개 분야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시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에 정착하고 함께 성장하는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들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해 직업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